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이원규



무더운 여름이 잦은 비와 함께 서서히 물러나고 밤이면 선선한 기운이 창문을 넘어온다. 바야흐로 가을이 오고 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문득 생각하니, 길이 곧 짐이었다.

집 밖에 그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다. 모든 길이 곧 짐이었다. 짐과 길은 자동차의 한 몸이었다. 짐과 짐을 이으면 선이 되듯이 짐과 짐을 이으면 그게 바로 길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승의 나그네이기에 밟바닥 밑이 모두 안방 구들장이요, 잘 모르는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그늘도 바로 짐이요. 숲 속의 잘 모르는 무덤도 짐이다. 나 그네는 가야할 길이 따로 없고 이 세상 어디에나 다만 늘 도착하는 짐만 존재하는 것이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짐은 무엇인가. 일생생 짐 한 채 장만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죽어 두 평의 짐, 무덤 하나 가지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짐과 무덤으로 곧바로 향하는 무한질주의 행로 속에 과정으로서의 길은 적당히 생략되어도 좋은가. 그것이 인생인가.

과정으로서의 길을 생략하고, 길이 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짐과 유품으로서의 짐만 존재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잃은 길도 길이요. 좌불안석의 짐도 짐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더

할 때 우리는 소중했던 이들의 무덤을 찾지 못한다. 적당히 슬프고 적당히 힘들 때는 무덤을 찾지 않는다. 왜 그럴까.

평상시에는 정신없이 잊고 살다 집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인생, 그 과정의 실제를 바로 보는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소중했던 이들이 행여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섞인 자기 성찰, 이것이 오히려 삶을 풍성하게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객관화 시켜 보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길이 곧 짐이요, 짐이 곧 무덤이다. 그리하여 무덤이 곧 인생을 되돌아보는 길을

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절망적일 때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친족이나 친구가 아닌 잘 모르는 이의 무덤이라도 좋다.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다 무슨 사연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잘 모르는 이의 무덤 앞에 소주라도 한 잔 올리고 큰절을 해보라.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에게 고해의 상담을 해보라.

'당신은 살아생전에 문득 삶이 팍팍해질 때 어찌했는지, 슬프고 외로울 때나 절망적일 때는 또 어찌했는지, 행여 지금 무덤 속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물으며 평생 울어도 좋다. 그러고 나면 알게 되리라. 무덤에서 짐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던 길보다 더 환해지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설사 원수라 하더라도 가까운 이들을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마침내 알게 되리라.

우리가 죽어 마침내 무덤을 짐으로 삼을 때 후세들에게 물려줄 '21세기 타임캡슐'은 지금 텁이가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무덤뿐만이 아니다. 바로 짐과 무덤 사이의 무한한 공간과 시간의 길이다. 그때 가오늘 지금이 순간에 하나님 찢고 있는 발자국들의 화석,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타임캡슐이다. 희망의 길인 것이다.

〈시인·지리산학교 대표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을 단상, 길과 짐과 무덤

더욱 혼돈의 길이 아닌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과와 목표만 주구하며 살다 보면 그 화사해 보이던 결과의 꽃마저 바로 죽음의 조화일 뿐이다.

하여 이 가을에 별초를 하고 성묘를 하는 것 아닌가. 별초와 성묘는 감사와 반성과 참회의 한 양식이다. 이 세상을 둘러준 조상에 대한 감사의 큰절이자 무언가 잘 못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참회요, 새로운 다음의 소중한 의식이다. 바로 여기에 인생 삶이의 핵심이 있다.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앞길이 깁깝

제시하니 나그네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 다. 먼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사연인지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를 안고 우는 여인이 있고,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다 어깨를 쫙이며 흘로 강변을 걷는 사내가 있다.

아파트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한 발짝 내딛는 남과 여가 있으며, 농약을 마시거나 칼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어차피 인생은 고해라지만 모두들 짐과 무덤 사이에서 문득 길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 가을의 나그네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문득 삶이 팍팍하거나 슬프거

는 그만한 손실보상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위 갈등이 조장된 것은 자치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두 자치구를 장악하지 않는 한 갈등이 해소되길 쉽지 않아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투표까지 간 서울시장은 본인이 공연한 대로 시장직을 물려넘으로써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의 약속은 중요한 것이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징이다. 하지만, 사후에 분쟁을 해결하는 직업인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설명하고 또한 그에 대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다.

위 두 자치구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은 처음 행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만일 선정되지 못한 자치구에요?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간의 간접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영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노조 시행이 이제 두 달째로 접어든다.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은 아직 시기상조다.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도 복수노조 단립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사의 불만과 불안을 없애고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 복수노조 갈등 해소, 노동위 역할 중요하다

준에 맞는 선진적인 노사관계 제도를 갖추게 됐다.

복수노조 제도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 통일성 혼란,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력다툼 및 분열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제도도 도입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사용자의 공고의무 위반과 교섭대표노조의 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과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고용관행·교섭형태 등을 고려한 교섭단위분리 결정, 교섭대표노조와 사

용자가 소수노조나 그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복수노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조 집행부가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부

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어용노조·

휴면노조가 있으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기존 노조는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사용자들과 결탁해 운영하거나 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투쟁일정도로 나갈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할 경우 다른 경쟁 노조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시에는 혈액분석기, 방사선장비 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실한 검진기관은 당장 영업정지를 시키고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 기고

## 복수노조 갈등 해소, 노동위 역할 중요하다

이승호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3년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금지됐다가 약 50여 년이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1사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노사관계가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과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 그동안 ILO(국제 노동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를 받았던 노동현안이 해소됨으로써 국제기

## 의사·의료장비 없는 영터리 건강검진 강력 단속해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나 의료 장비 없이 건강검진을 해준다면 누가 믿을까. 그런데 의사나 의료 장비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적발된 영터리 건강검진 건수가 자그마치 4만5800건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검진센타에서는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치과의사가 검진한다고 한다. 특히나 직장이나 지역 단위로 시행하는 출장검진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한다. 며칠 없는 업자가 검진기관과 보험급여를 나눠 먹기로 계약을 맺고 형식적인 검진을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시설

## F1 대회를 '전남도 행사'로 착각하는 정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 F1 국제자

동차경주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 14일부터 16

일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이번 F1은 전

남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활한 대회 운영과 교통 편의, 숙

박시설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16만 명이 넘는 관중 동원에

도 불구하고 대회 운영 미숙과 컨트롤 타워

부재, 교통·숙박시설 미비, 마케팅 및

스폰서 유치 실패 등 많은 문제점을 노

출했으나 이번 대회에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영암 F1의 성공 여부는 정부

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F1 대회에

는 경주장 추가 공사비 1025억 원, 대회

운영비 780억 원 등 1805억 원이 필요

하니 확보된 예산은 국비 200억 원과 전

남도 자체 예산 475억 원에 불과해 정부

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성공 개최

는 요원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유독 F1 대회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니 그 저의가의 심스러울 때이다.

F1은 세계 19개 개최국 모두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회를 치르고 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전세계 6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세계 3대 메인 스포츠 이벤트로서 경제적 파급과 국가 홍보 효과 등을 노려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F1 대회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격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에 필요 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 더 이상 '뒷짐'을 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F1에 관심을 표명하고, 김정숙 총리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주목할 것이다.

## 예산 낭비 지자체 반드시 책임 물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 계약이나 설계 변경, 보조금 부당 지원, 비생산적인 전시행정 등 행정 미숙과 고의적인 불법에 의한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 조차 자체 조달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 낭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구례군과 곡성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해마다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남도의 구례·곡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161건의 부당·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21억 1100만 원을 회수, 추징 등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 구례군은 의약품 수의 계약을 통해 구례군을 통해 부당한 예산을 주는 것과 같은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당한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소송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예산 낭비에 관련된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민사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이슬람 최대의 종교행사는 라마단(Ramadan)이다. 전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聖月)로, 이슬람력(曆)으로 9월이다. 그 명칭은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뜻하는 '라마다(ramada)' 또는 '아리마드(arramad)'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5억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원리와 코란의 세계로 돌아가는 기간이다.

시리아의 라마단은 피로 시작됐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라마단 시작과 함께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악의 유혈진압을 벌여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